

사순 제3주일

제 1독서 : 출애 17,3-7

제 2독서 : 로마 5, 1-2.5-8

복 음 : 요한 4, 5-42

순정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요한 4,14).

강론

“삶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

김병환 신부/복자 천주교회

물은 인간과 자연에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 물은 옛부터 종교의식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었는데 더러움에서 인간을 깨끗이 씻는 정화의 역할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물은 계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뜻대로 물을 분배하셨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운명을 당신 수중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시편 104장은 하느님이 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물이나 땅 밑의 물은 다같이 그분의 피조물이며, 샘을 솟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어 지상을 번영케 하시고 사람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 옛날에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 물이 솟아나게 하셨듯이 에제키엘은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을 솟아오르는 샘으로 인도하셔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셨다. 그리고 이 물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충만하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낙원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며 하느님의 백성은 이 물에서 생명과 깨끗함과 성덕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자들에 의해 약속된 생명의 물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낙원의 끝없는 행복을 상징하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는 마치 모세 시대에 물이 흘러나왔던 바위에서처럼 약속의 땅으로 순례하고 있는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마치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우리 삶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소리

“안가”

밀실정치의 무대로 알려진 ‘안가’가 헐리고 그 자리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청와대 주변 도로와 인왕산 등산로가 개방된데 이은 반가운 소식이다.

본래 ‘안가’는 경찰이나 안기부서 공작처를 가르키는 안전가옥의 준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안가’가 비밀정치의 산실로 변했고 통치자의 심야 술집이 됐다. 중요한 시국사건이 생기면 이곳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이 주요인사들과 은밀히 만나는 장소로 쓰이면서 폐쇄적인 밀실의 산실로 둔갑했다.

높이 3m의 웅장한 담으로 둘러싸인 ‘안가’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안가’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다.

권위주의 30년 세월이 물고 온 슬픈 잔해라 하겠다. 그래서 새정부가 ‘안가’를 허물고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 반갑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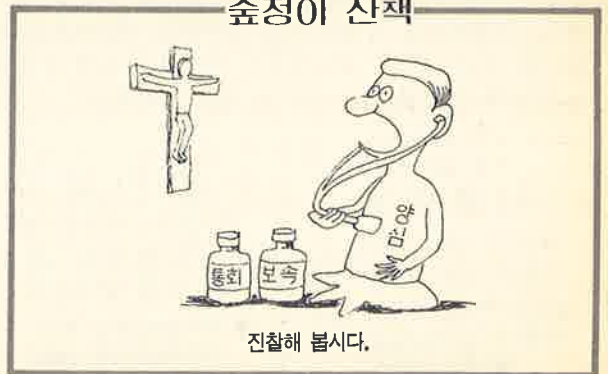
새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폐쇄적인 밀실정치를 거부하고 공개적 여론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요즘 말썽을 빚고 있는 새대통령의 인사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분위기를 자아내 씁쓸하다.

인사에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베일에 싸인 인사는 또다른 형태의 권위주의를 유발하고 보이지 않는 ‘안가’를 새로 짓고 있지나 않는지 걱정이다.

새대통령은 대선 때 내건 77개 공약 가운데 ‘인사위원회 설치 운용’이 들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22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창세 18, 16-33)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징벌을 앞에 두고 하느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고 간 유명한 대화이다. 유배생활을 하면서 이 이야기의 저자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기 민족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수난을 겪게 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한다. 나라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불충실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이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믿어도 좋은지, 하느님은 정의롭게 이 일을 처리하셨는지, 당대의 사람들과 함께 의문을 제기해본다. “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이 의문이 반영되어 있다.

마르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이 사악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던 세 사람이 떠나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소돔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따라 나온다. 세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신 주님께서 혼자서 말씀하신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랴?” 하느님의 이 독백 속에는 고대 근동 지방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신의 종이나 왕의 종은 친구로 취급되어 주인의 계획을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충실한 종이요 친구로 삼으셨기에 계획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신다.

하느님의 계획이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을 직접 확인한 후, 사실임이 드러났을 때 그들을 벌하시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아우성이란 그 도시의 주민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거슬러 하느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뜻한다. 아벨의 피도 하느님의 정의에 호소하면서 땅에서 울부짖었다. 두 사람은 죄악상을 확인하러 소돔성에 내려가고 하느님만 아브라함과 함께 남는다. 이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하느님 앞에 중재자로 나선다. 아브라함의 간청하는 모습에서 한 집단의 멸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의인의 고충과 고운 심성을 엿볼 수 있다. 겸손과 신뢰에 가득 찬 그의 태도, 그러면서도 자신의 뜻을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그의 탄원은 하느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불쾌감 없이 끝까지 대화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아브라함이 중재하는 모습

처음에 “죄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라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50명을 보아서라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하신다. 아브라함은 실망하지만 노여워하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20명, 10명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고장으로 돌아간다. 10명은 최소한의 단위이다. 그 아래로는 개인으로 떨어지고 만다. 열 명이랴! 두 세 가정이면 이를 수 있는 숫자인데 의롭게 살아가는 가정 둘이나 셋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에 있어서 왕과 예언자 등 백성의 지도급 인사는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인들의 숫자가 극소수였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만이라도 있는 한 인내해주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간청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다.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 75-0550

활티생수

창주교구 미원성당 샘물

김일수(요셉)
소화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APT특수 보조기 ■APT자동 팔래
전조대 ■인테리어 다목적 선풍
■원목·철제가구

성원 인테리어 총판

서원식(야고보)
고선규(미카엘라)

☎ 78-1941, 252-9233

소흥영 외과의원

레이저 치질 수술(무통)
통증 컴퓨터 치료실
소흥영(요한)
유인경(유리안나)
시청 앞

☎ 85-3668, 85-8120

5분 교리

“복음적 권고와 수도생활”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삶은 그리스도인 누구나의 소명이다. 이제 예수님을 좀더 가까이 따르라는 부르심을 느끼고 관대한 응답으로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이다. 수도생활은 복음적 권고인 정결, 청빈, 순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삶이다. 사람들끼리의 약속도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하느님 앞에서의 맹세인 수도서원은 생애를 걸어야 하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온, 자유스럽고 의지적인 실행이며 전적인 헌신의 삶이다.

정결 많은 이를 사랑하고 봉사하려면 한 사람과의 혼인이라는 계약을 벗어나 성(性)을 포기해야 한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은총으로 불림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념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하고도 사랑할 수 없는 폐쇄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성숙한 인격과 깊은 자기 실현을 이루는 삶이다.

가난 인간의 삶에 깊이 관련된 물질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태도가 곧 가난의 삶이다. 당신을 위하여 머리 누일 곳도 없었던 예수님처럼 개인 재산의 소유를 포기하며, 재산, 지식, 권력의 안전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답게 하느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쓰는 태도,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결들여 받게 되는 삶이다.

순명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성부의 뜻을 찾고 따른 예수님의 순명을 본받는 것이 수도자들의 순명 삶이다. 자신의 인격 실현, 자신의 뜻, 의지, 명예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대의 사고방식에 도전받는 순명정신이다. 이상 3가지 복음적 권고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지상의 행복과는 반대되는, 그래서 수도자들은 거꾸로 사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정결은 최대의 사랑이요, 가난은 최대의 부요, 순명은 최대의 자유이다” (알베리오네).

* 참고 자료 : 성메리의 종(VHS 120분), 높은데서 사슴처럼(책)

교구 소식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3월15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샤를르 드 푸코.

- 1. 춘계 주교회의 : 3월15일-19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축! 건진 : 3월21일(일) 오전10시30분 둔율동 성당.
3. 천호 피정 안내 : 3월20일-21일 천호 피정의 집, 주제-하느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강사-김동준 신부.
4. 사순절 전례 교육 : 3월20일-21일 나바위 피정의 집.
5. 제2기생 성서교실 개강 : 3월17일(수) 오전10시 전동 성당 교육관.
6. 수녀연합회 월례회 : 3월16일(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7.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3월21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8. 제44차 M.E.(농촌 부부) 재모임 : 3월14일(일) 오후3시 가톨릭센터 3층.

※축! 영명 : 19일(성요셉) 안복진, 배영근, 유장훈, 정승현, 나궁열, 김순태, 조정오, 강덕형, 서광석, 최상범, 서석희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2분만 늦게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서두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2분만 늦게 시동을 걸고 과속을 피한다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학동 성당기(도안) 공모
• 접수 마감일: 1993년 3월 31일
• 시상 내용 * 성당주보: 착한 목자 대상1명: 상패 및 부상(50만원)
입선작2명: 상패 및 부상(각10만원)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접수 및 문의처:
송학동 성당 (0653)841-9713

교회 출판물 보급
부녀사원 모집
• 전주, 군산(이리), 남원지역 책임보급자로 모시려 합니다.
• 보험직, 판매직의 경험자 우대
• 전화번호 명기, 소개서 우송바람
• 문의: (02) 886-4980
성황석두 루가 서원

산 농 서 실

고영선(마태오)
송춘섭(로사리아)
• 전고사거리<->병무청사거리
• 기린B/D(가야차 전시장) 3층
☎ 88-5580

요심이 (1023) 김병오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일 선종하신 모친故 박아네스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족 대표 이태주 신부 드림

여사무원 모집

- 자격: 고졸 이상, 영세증명서
• 구비서류: 이력서, 호적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1통
• 제출마감: 3월 14일
• 연락처: 251-1911 금암 성당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교도소후원회원 사순절피정 : 22일 오전10시~후4시. 평화동 성당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길 동 주

1. 가정방문안내: 17일-중노10, 18일-중노11, 오후2시.
2. 성주간 및 부활절성가연습: 금요일-저녁미사 후, 토요일 전10시, 많은 참여바람. 3. 예비자교리안내: 수요일-저녁미사 후, 일요일-장엄미사 후, 중·고생-일요일 오후3시30분.
4. 모임: ①꾸리아(14일) ②여성연합(16일 어머니미사 후) ③제숙형제회(20일 후2시) ④대전회(21일 장엄미사 후)
5. 알릴: 평일미사 전 후로 성사보시는 분은 판공 성사표를 가져다 보세요. 6. 축! 혼인: 신랑-김현규(베드로) 신부-전애숙(안젤라) 21일 후12시. 7. 사랑의 성금: 52,000원. 누계-257,000원.
8. 금주침소: 중노13, 14반. 차주침소: 중노15, 16반.
□ 지난주 봉헌금: 959,480원 □ 교무금: 1,07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가정방문: 태평동5반(화) 16일 오후2시, 태평동6반(수) 17일 오후2시, 태평동7반(금) 19일 오전9시30분.
2. 사순절 돼지저금통을 잘 관리하십시오.
3. 판공성사: 평일미사 전 후(성사표는 사무실에)
4. 회합: ①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2시) ③해설자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④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⑤부녀회(18일 오전10시) ⑥성우회(21일 공식미사 후)
금주전례: 해설-조옥래, 독서-김종성씨 부부, 봉헌-김홍현씨 가족.
차주전례: 해설-오교성, 독서-황운주씨 부부, 봉헌-조백환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09,030원 □ 교무금: 806,3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한 동 목

- ※ 3월은 성요셉 성월: 성가정과 임중자, 노동자의 주보.
1. 모임: ①동정녀들의 모후Cu: 오늘 공식미사 후 ②청년회, 성가정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③장년회: 20일(토)
 2. 사순절 가정방문: 17일(수) 오전-백암, 오후-내정, 18일(목) 오전-서당, 오후-공기, 19일(금) 오전-계월.
 3. 부활절 판공성사: 매 미사 전후(성사표지참-사무실) 4. 예비자 입학식: 오늘(교리-매주일 공식미사 후) 5. 사순절 신자피정: 21일(주일) 공식미사 후-4시까지(성당) 6.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21일(주일) 오후4시(성당) 7. 금주침소: 천주의 모친Pr. 8. 차주전례: 해설-박영민, 독서①강덕용 ②김금자, 봉헌-최경원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41,950원 □ 교무금: 519,5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김명 응

- ※ 사순 제3주일! 3월은 성요셉 성월 ※매주 금요일은 금욕의 날
1. 회의: ①계숙 프란치스코3회-3월14일(수) 오후2시 ②성모회-다음주일(3월21일) 공식미사 후
 2. 모임: 전례부-3월25일(목) 오후8시.
 3. 알릴: ①봉성체-3월24일(수) ②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에 많은 참여 바람 ③사순절 동안 근검절약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사랑으로 가진바를 나눔시다. ④교무금 미수자는 사순절 동안에 완납바랍니다.
 4. 감사: 손님신부님들의 식사 준비에 봉사해주신 여성분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715,750원 □ 교무금: 71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오 직 환

- ※ 사순 제3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올뜨레아
 2. 가정방문: 3월17일-18일(수,목)-3,4구역 계속
 3.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미사 전.
 4. 침소봉사: 4구역 3반, 4반, 5반.
□ 지난주 봉헌금: 737,900원 □ 교무금: 1,366,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천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렌

1. 금주: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회 모후Cu(후2시) ③사목회(후8시) 2. 성모회: 17일(수) 오전11시.
3. 금주명화상영: 천지창조, 17일 저녁미사 후.
4. 구역반장회의: 18일(목) 오전11시.
5. 베에따회: 20일(토) 오전10시.
6. 사순절 성주간 전례교육: 20일~21일 나바위피정의 집.
7. 십자가의 길: 저녁미사 30분전(6시30분)
8. 부활판공성사: 평일미사 전후. □ 지난주 봉헌금: 1,921,410
9. 견진성사 신청서 접수마감: 3월20일까지.
10. 어머니성가대 임원개편: 단장-김영원(올리바) 부단장-이순자(가라리나) 총무-김진희(수산나)
11. 본당의날 행사 준비작업: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노력봉사 협조바랍니다) 12.차주: ①영적도서전시판매 ②바너의 성모C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삼 근

- ※ 다음주 핑신도 강론: 반상감(바로로) 부회장.
1. 구역 반회장 피정: 20일 후3시~21일 후5시 천호피정의 집.
 2. 성주간 전례 특별교육: 20일~21일 나바위, 전례위원 의무.
 3. 성가대 부활성가 교육: 15일 9시30분 샌타 의무적 참여.
 4. 부활 판공성사: 22일 저녁7시30분. 종교생: 27일~28일.
 5. 구역 반미사 일정: 15일-18구역3반 저녁8시, 16일-10구역4반(204동) 전10시30분, 11구역1반(301동)후3시, 9구역4반 저녁8시, 18일-10구역5반(205동) 전10시30분, 11구역3반(303동)후3시, 12구역3반 저녁8시, 19일-11구역2반(302동) 전10시30
 6. 회의: 성모회-17일 어머니미사 후, 임회를 환영합니다.
 7. 축! 혼배성사: 김두영(미카엘) 김진승(로사) 15일 저녁7시.
 8. L.M단원교육: 20일 오후3시부터 전동.
□ 지난주 봉헌금: 1,149,520원 □ 교무금: 1,499,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한 병 갑

1. 성모회, 자모회, 전례지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16일(화) 오전-성원골드, 오후-한양운남, 저녁-삼정1, 3, 17일(수) 오전-화산1, 오후-신일, 18일(목) 오전-거성그린1, 오후-거성그린2.
3. 꾸리아윌례회: 다음주일 미사 후.
금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육연숙, 강회연
차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이선주, 정준성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사목회장이 동 섭

- ※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십자가의길 매주 금요일 9시30분 성당) ※ 사순절 특별강론 오늘 공식미사 중
1. 아치에스 행사: 오늘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성당에서 있습니다.
 2. 자모회, 요셉회: 17일(수) 10시30분.
 3. 올뜨레아: 오늘 공식미사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판공성사: 23일부터 4월5일까지 매 미사전후에 구역별로
* 견진교리: 16일(화)부터 27일까지입니다. (게시판을 참고로 하십시오) 매일 오후7시30분에 시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구역반장: 신자 색인표를 기록사항을 빠르시길내에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순절 돼지가 잘 크는길 돌보시기 바랍니다
* 미사안내: 금주-신자들, 계약의 패, 차주-바다의별, 화해의모후
□ 지난주 봉헌금: 1,449,500원 □ 교무금: 1,878,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 ※ 축! 영명축일: 김요셉(19일)본당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축하사-오늘 공식미사 후.
1. 모임안내: ①올뜨레아, 기우회-저녁미사 후 ②바자회준비회의-저녁미사 후③성체장복-18일(목) 10시미사 ④제대회-19일(금) 10시미사 후
 2. 가정방문: 16일(화) 오후2시, 광진1.2반, 17일(수) 제일 APT, 18일(목) 남양유자, 송정반
 3. 본당바자회: 5월20일(목)~23일(일)까지(4일간) 차주모임-레지오 아치에스행사
금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소현영 ②김성보 봉헌안내-김영길 부부, 박남철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전형섭 ②김은숙 봉헌안내-임희준 부부, 김향열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89,380원 □ 교무금: 1,909,000원